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펀드 조성

전주시,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펀드 선정... 엠와이소셜컴퍼니와 함께 최소 50억원 규모 결성 예정

전주시가 임팩트 투자사인 ㈜엠와이 소셜컴퍼니와 함께 사회적기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출자한 ‘엑스트라미일 라이콘 펀드’가 한국벤처투자의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출자사업에 최종 선정돼 모태펀드 30억 원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확보한 모태펀드에 더해 시와 임팩트 투자사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각 5억 원, 타 지자체 10억 등을 출자해 최소 50억 원의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20억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3억 규모의 용

자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라이콘 펀드에 출자함으로써 투자 방식의 자금 지원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라이콘 펀드는 혁신적 비즈니스와 기업이 정신을 보유한 소상공인 기업이 집중투자하는 펀드로 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인 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

원정책 축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 기업, 전문가,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펀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올해 초부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에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해 왔다. /권희성 기자



사진전주시는 사단법인 더 숲과 공예품전시관, 전주시 녹지정원과 한옥마을사업소가 전주한옥마을 일대의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도심 속 녹색 문화공간 확대

한옥마을 일대 정원 조성·유지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방문객이 많이 찾는 도심 속 유희공간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단체와 손을 잡았다.

전주시는 사단법인 더 숲과 공예품전시관, 전주시 녹지정원과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가 전주한옥마을 일대의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옥마을 일대의 유희부지에 대한 정원 조성은 사단법인 더 숲과 초록정원사, 정원작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

공예품전시관과 한옥마을사업소는 정원이 조성된 공간의 일상적 유지관리와 시민 접근성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 녹지정원과는 전체 사업 조정 및 행정지원을 맡기로 했다.

정원 조성 대상지는 최명희문화관, 공예품전시관 내·외부, 전주 동헌 등 한옥마을을 주요 거점 4개소이다.

앞으로 이곳들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일상 속 녹색 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시는 조성 이후에도 기존에 운영되는 정원해설사 프로그램과 연계, 해당 정원을 정원 산책 코스로 포함시켜 체험과 문화, 해설이 어우러진 정원 체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더 숲은 도시 내 공공정원 조성, 유희부지 녹지화, 녹지분야 유지관리, 초록정원사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온 비영리단체로,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이영섭 전주시 자민순환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원을 일회성 조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민 자산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며 “시민과 기관이 함께 돌보는 정원 모델을 통해 도심 속 녹색문화 기반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집중호우 대비 침수 방재시설 점검

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

전주시가 올해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을 점검한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은 여름철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써 진북동, 팔복동, 송천동, 전미동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24일 전주시 재난안전국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



름철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강화하고자 지난 3월 배수펌프장의 준설공사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배수펌프의 절연 상태 확인 △수배전반 관리 상태 점검 △수문과 제진기 및 각종 기계류의 작동 상태 등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특히 기계시설물의 작동상태점검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진기틀 배수펌프장의 경우 원활한 배수기능을 위해 제진기 앞 이물질을 거르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각종 재난상황에 발 빠르게 빈틈없이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안전

데이터의 통합관계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상황실 고도화를 추진하여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침수 위험 도로 수위계측 △하천의 범람 또는 홍수 등의 상황 발생 시 재난경보 발령 △하천 수위 측정을 위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구축된 재난상황실의 재난안전전행 플랫폼과 연계하여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사전대비 점검뿐 아니라 상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정책 적극 추진

전주시가 고금리·고물가·소비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영안정 지원 △제조기업 고도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금(최대 연 3.5%)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8조 원 규모의 성장주기별 중소벤처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전담 매니저’를 통해 현장을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

업을 통한 제조혁신 기반 확산,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안전시설보장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청년이 유입되는 첨단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수테크이다.

시가 집중 육성 중인 탄소소재 특화기업인 수테크는 전주시의 기술개발 연계지원과 행정적 밀착지원을 통해 탄소융합소재 기반 ‘탄소섬세투수블록’ 개발에 성공, 지난 3월 2025년도 제2차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수테크에 대해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전담 매니저 통한 현장 애로 해소 △조달청 혁신제품 진입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하여, 수테크가 제품 양산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이는 전주시의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가 현실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 /권희성 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줍깅데이' 진행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는 24일 일행교사거리 일원에서 ‘새마을 줍깅데이’ 활동을 실시하며 환경 정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과 함께 건강증진을 도모했다.

권현숙 회장은 “깨끗하게 변한 거리 모습을 보며 작은 실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효자2동을 만들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집중 육성 중인 탄소소재 특화기업인 ㈜수테크는 지난 3월 2025년도 제2차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 지역 여건 맞는 건축조례 개정 5월부터 적용

전주시가 생활환경과 기업 활동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건물 높이 완화, 조정 설치 면적을 아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장 시는 공장 또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5월부터는 해당 지역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채류형 원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거

리 기준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돼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한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건축행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 활동 지원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62회 법의 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고민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으시니까?
나의 변호사(www.klaw.or.kr)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제 1 부 회 장 이 삼 일		제 2 부 회 장 이 민 호	
총무상임이사 김 용 빈	이 사 윤 석 주	이 사 강 원 표	
재무상임이사 이 진	이 사 최 경 섭	이 사 주 우 리	
공보상임이사 홍 민 호	이 사 추 길 환	이 사 박 심 미	
인권상임이사 우 아 립	이 사 김 영 호	이 사 김 은 강	
교육상임이사 강 호 석	이 사 김 대 호	이 사 최 경 환	
법제상임이사 나 영 주	이 사 박 금 태	이 사 송 도 희	
여성상임이사 진 태 회	이 사 김 환 수	이 사 김 민 규	
군산상임이사 유 경 재	이 사 유 주 환	이 사 윤 은 주	
정읍상임이사 유 택	이 사 이 보 향	이 사 김 성 범	
익산상임이사 최 환 석	이 사 광 효 영	이 사 최 덕 문	
	이 사 박 기 봉	이 사 하 현 환	
	이 사 김 용 선	이 사 홍 호 성	
	이 사 장 충 석		
	이 사 최 혜 옥	감 사 광 영 수	
	이 사 박 수 연	감 사 김 진	



회장 김 학 수